# 동해기슭에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

최근 푸른 파도 늠실대는 동해의 기슭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게 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건의 첫삽을 박은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신문과 TV방송으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준공을 앞둔 야영소를 찾으시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건축물,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2일에는 성대하게 진행된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였다.

푸른 바다와 드넓은 백사장, 소나무숲이 우거진 명당자리에 야영1각, 야영2각이 멋들어지게 건설되고 큰 회관과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비롯하여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다 갖추어져있고 호수를 중심으로 공원까지 조성되여 어른들도 다시 어린이가 되여 야영생활을 해보았으면 하며 저마다 감탄을 터치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야말로 새 세대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그이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이다.

세상에는 호화스러운 호텔들이 적지 않고 세계의 곳곳에 있는 궁전 또한 가지각색이다. 사치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호텔들, 국사를 론하거나 력사유적유물로 이름난 궁전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많은 호텔들과 궁전들을 보아도 아이들을 위해 훌륭하고 웅장하게 일떠선 호텔이나 궁전은 없다.

아이들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주고 안겨주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평양의 제일좋은 명당자리에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지어주신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평양의 중심부에 온 나라가 다 바라보게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웅장하게 일떠서던 그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가 오늘 어린이방송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높고 아름다운 궁전을 수령님이 지어주신다네…》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후대들을 위해서, 꽃봉오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가고 하시며 어서 빨리 궁전을 잘 지어주자고 하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을 번듯하게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의 만경대지구에 일떠서는 학생소년궁전이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으로 일떠서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할데 대해 이르시고 몸소 설계안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호텔, 궁전을 번뜻하게 일떠세워주신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희한한 옥류아동병원도 세워주시고 도처에 현대적인 물놀이장들과 유희오락시설들도 건설하도록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밤마다 부모들의 따뜻한 품을 더듬어찾을 부모잃은 고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당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시며 친부모도 주지 못할 따뜻한 정을 다 기울여주고계신다.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야영소를 아이들에게 안겨주게 되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준공을 앞둔 그날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그이의 후대사랑은 동해처럼 넓고넓은 친아버지의 사랑이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그칠새없는 내전과 전쟁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고아로 버려지며 막돌처럼 천대받는 비극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그 누구도 보호해줄수 없고 품어줄수도 지켜줄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랑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이 지구상엔 얼마나 많은가. 남조선에서는 대형려객선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되여 거기에 타고있던 수백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원의 손길 한번 못 받고 모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변이 빚어졌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아래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고 병치료를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동해기슭에 솟아난 아름다운 아이들의 궁전은 미래를 사랑하고 중시하는 공화국의 앞날은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보여주며 행복의 활무대로 아이들을 손저어부르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 동해와 남해에 펼쳐진 판이한 두 현실을 보고

동해와 남해는 다같이 조선반도를 둘러싼 바다이다. 동해의 물이 흘러 남해에 이르고 남해의 물결이 동해에 굽이치기도 한다. 민족이 갈라져 바다에도 경계선이 생겨난지 70년을 가까이 하는 지금 한지맥으로 이어진 조선동해와 남해의 기슭에서는 거의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현실이 펼쳐져 세인의 시선을 모으고있다.

한쪽에서는 대형려객선이 침몰하여 그안에 타고있던 수백명의 아이들이 무리죽음을 당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없는 사랑의 궁전이 솟아나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세상에서 꽃망울처럼 아름답고 순진하고 깨끗한것이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가정과 사회의 기쁨이고 미래이다. 그래서 북녘의 아이도 귀하고 남녘의 아이들도 소중하다. 그러나 그 운명은 서로 달랐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5월 2일 북녘의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봄볕이 한껏 깃을 편 풍치수려한 동해명승지의 훌륭한 야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성대한 준공식을 진행하고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도 관람하고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도 관람하면서 학생소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자기들의 행복상을 마음껏 펼쳐보이였다.

다채로운 축하행사들중에서도 마감에 진행된 축포발사는 학생소년들의 기쁨을 최절정에로 이끌어갔다.

항구도시의 밤하늘을 분홍빛, 주홍빛,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눈부신 불보라들은 부럼없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자라는 공화국 학생소년들의 아름다운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나라 아이들의 마음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로 달려가고있다.

회관의 극장과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솜씨전람실과 실내수영장, 야외물놀이장을 비롯하여 수족관과 료리실습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나 손색없이 꾸려진 황홀한 야영소는 어서 오라 아이들을 손저어 부르고있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너무도 희한하게 꾸려진 아이들의 궁전을 TV와 신문으로 보면서 온 나라 인민이 감탄을 터뜨리고있으며 아이로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나도 야영을 가보고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동해기슭에 출렁이는 웃음바다가 펼쳐지고 있을 때 남조선의 진도앞바다기슭에서는 최악의 대참사가 빚어져 온 남녘이 눈물바다가 되고 절망과 비애, 분노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있다.

려객선의 침몰과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은 수백명의 사람들중 그 대다수가 나어린 고등학교학생들이다. 그들은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가던 학생들이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운명의 검은 파도가 그들을 집어삼키였다. 그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될 때 소생의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있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바다속에서 부르짖었고 손가락이 터지고 부러지도록 배의 창문을 허비고 두드리였다. 그러나 살아서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배가 침몰하는 속에서 《엄마 사랑해》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바다밑에 수장된 나어린 고등학생의 그 울부짖음과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울분을 터뜨리는 수많은 부모들의 피절은 웨침으로 지금 진도바다가기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이 끔찍한 참사는 자연의 광란이 빚어낸 우연적인 재난이 아니라 철저한 인재였다.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능히 살릴수 있는 아이들이였건만 구원의 손길이 없어 그들은 바다속에서 처절히 죽어가야 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의 리윤만을 앞세우는 반인륜사회, 집권층의 무능과 반인민적정치가 낳은 집단타살이였다.

동해기슭과 남해기슭에서 펼쳐진 아이들의 서로 다른 두 운명, 그것은 북과 남의 판이한 두 정치의 반영이다.

공화국에서는 정치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이번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체현하신 절세위인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할것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건공사에 강력한 인민군대 건설력량을 파견하시고 제기되는 자재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건설현장에 여러차례나 나오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얼마전 성대한 준공식을 펼쳐주시고 몸소 준공식에도 참석하신 원수님께서는 저녁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궁전을 배경으로 황홀한 축포가 련방 터져올라 하늘에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꽃세계를 펼쳐놓을 때 그것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원수님의 가슴속에 고패친것, 그것은 저 황홀한 축포처럼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꿈과 모든 기쁨,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뜻과 결심이 아니였을가.

공화국의 인민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사회주의부귀영화를 한껏 안겨주시려고 온 나라의 유치원과 학교, 학원과 애육원, 육아원들을 찾으시여 아이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고 천만금도 아낌없이 투자하여 희한한 옥류아동병원과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 현대적인 시설들을 도처에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송도원의 바다기슭에서 아이들을 위한 성대한 야영소 준공식이 진행되던 바로 그날 그이께서 안고오시여 아이들앞에 펼쳐주신것은 푸르른 동해보다 더 넓고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사랑의 바다, 뜨거운 정의 바다였다.

그 바다속에 풍덩 뛰여들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들의 행복상을 한껏 과시하고있는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이다.

사랑으로 인간을 키우고 인간의 꿈을 꽃피워주는 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이 가닿는 기슭은 이렇듯 행복과 기쁨의 기슭인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의 모든 학생소년들은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을 때마다 그 긍지와 자랑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로 목청껏 터치고있다.

송도원에 펼쳐진 황홀경과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진도앞바다의 《세월》호참사는 북과 남의 어디가 천당이고 지옥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바다는 넓어도 파도는 오직 기슭으로만 달려오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안겨살 품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이다.

절세위인을 모시여 공화국의 미래, 민족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휘황찬란한것이다.

김 연 희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 《죽음의 날》에 구원된 려객선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의 일이다.

태평양서부지역에서는 급작스러운 기류변동으로 강한 태풍이 일었고 그 수역을 통과하던 수십척이나 되는 1만t급이상의 선박들이 침몰됐다. 그 참사에 대해 일본의 한 해운학전문가는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지점인 남조선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향방없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실상을 렬거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에 공화국의 려객선 《삼지연》호는 태풍구역을 유유히 벗어나 무사히 항행하는 기적을 세웠다.

당시 조선동해의 한복판을 항해하던 《삼지연》호는 뜻밖에 태풍중심권에 들게 됐고 선원들은 객실들의 파손과 침수상황에 대해 조난신호를 띄웠다.

해당 관계부문을 통해 그 사실을 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배에 몇명이 타고있고 항로위치는 어디인가 등 자세히 알아보셨다. 배에는 조선대학교 졸업반학생대표단원들과 조청모범반일군단기조국방문단원들을 비롯한 근 400명의 재일동포들이 탔으며 원산동쪽 150mile해상에 있다는 상황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즉시 《삼지연》호 구출을 위한 비상조치를 취하도록 하셨다. 신속히 구조전투지휘부가 조직됐고 인민군비행기와 함정들이 출동했으며 륙해운부문에서는 2만t급대형짐배에 의료진과 함께 구명기재들을 실어 태풍지역으로 급파했다. 한편으로는 《삼지연》호 설계건조자들이 배의 기술상태를 놓고 침몰을 막기 위한 방도를 모색했다.

사고현장에는 초당 수십m의 속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쳤고 파도 또한 그 높이를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세찼다.

시시각각 려객선구조를 놓고 마음을 놓지 못하신 장군님께서는 해당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셨다.

배가 나간다고 해도 파도에 시간당 5mile밖에 전진할수 없기때문에 배가 나가기 전에 침몰할수 있다, 중요한것은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투쟁을 잘하는것이다, 선원들과 총련조국방문단성원들이 총동원하여 자체로 견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가 서있는것이 곤난하니까 가능하면 우리쪽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서로 겁을 먹고 당황해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할수 없다, 그러므로 배의 지휘도 침착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고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이의 가르치심은 곧 《삼지연》호에 전달됐다. 선원들과 전체 승객들은 객실 웃부분에 쓸어드는 물을 아래부분에 몰아넣고 해수뽐프와 소방뽐프로 퍼냈고 배는 앞으로 전진했다. 그사이 하늘길로, 바다길로 공군비행기들과 해군함정들이 《삼지연》호 가까이로 접근했다.

드디여 배는 비행기와 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귀항했고 닻을 내리게 됐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덕망과 림기응변의 령활한 구조작전에 의해 세계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된 1980년 10월 26일날에 《삼지연》호는 기적적으로 구원됐던것이다.

본사기자

## 국가가 어린이들을 보살펴주는 나라

얼마전 성대한 준공식을 펼쳐주시고 몸소 준공식에도 참석하신 원수님께서는 저녁늦게까지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아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궁전을 배경으로 황홀한 축포가 련방 터져올라 하늘에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꽃세계를 펼쳐놓을 때 그것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원수님의 가슴속에 고패친것, 그것은 저 황홀한 축포처럼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꿈과 모든 기쁨,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뜻과 결심이 아니였을가.

내 나이 올해 60이 되여온다. 10여년간 여기 애육원에서 일해오면서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원아들을 볼 때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시책에 대해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

어린이보육교양법만 보아도 그렇다. 38년전인 주체65(1976)년 4월 29일 공화국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되였다. 그후 1999년 3월 4일에 수정보충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맡아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공화국의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아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의 결정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튼튼하게 자라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자고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던 그이의 숭고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도 원아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하늘가득 어려오고 푸짐한 식탁과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수많은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탁아소와 유치원을 세워주고 식료품값을 비롯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나라, 특히 부모잃은 아이들과 세쌍둥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워주고 여러명의 어린이를 키우는 녀성, 한꺼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키우는 녀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차례지는 나라는 공화국밖에 없다.

얼마전 신문에 남조선에서 집권자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들었던 《전면무상보육》이 자금문제를 구실로 실행되지 않고 또한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비참해지고있다는 소식이 실렸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직도 외국에 팔려가고, 녀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것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는 현실, 그 원인의 하나가 엄청난 《양육비》부담에 있다고 한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한가정에서도 그러할진대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보살핌속에 밝게 웃으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된다.

평양애육원 원장 최 송 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을 축하하여 진행된 축포발사의 한 장면